

# Oracle Fusion Middleware Forum 2009

## ‘퓨전미들웨어’로 비용절감을 이뤄내다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포럼 2009

세계적인 경제 위기 한파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IT 업계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용절감'이라는 과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IT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비용절감'이 화두가 되는 건, 경제 위기 등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비즈니스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여전히 변함없다.  
오라클은 비용절감을 이루면서 동시에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자사와 경쟁사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매우 '특별한 세미나'를 하나 준비했다.

저자\_류재용 기자, 아크로팬([www.acrofan.com](http://www.acrofan.com))

# Oracle Fusion Middleware Forum 2009

##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미들웨어

5월 연휴를 앞둔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본 행사가 시작된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포럼 2009'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날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미들웨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세미나였다. 세미나의 주인공인 '미들웨어'는 사전적인 정의로만 이야기한다면 '별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엮어주는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IT 비즈니스에서는 하드웨어, 프로토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시스템, 솔루션 등 모든 개체화된 모든 요소가 연계시켜야 할 대상으로 존재한다. 게다가 각 개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가 '1+1' 또는 '1+n' 식으로 확장되는 경향까지 있어 이 요소들을 매끄럽게 연계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까지 분화시키면서 미들웨어가 절실한 영역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라는 단어가 이제는 IT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미들웨어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자,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서비스나 피어처가 필요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운영의 모를 더하는 차원으로 미들웨어 이용이 먼저 고려되고 있다.

이렇듯, '미들웨어'는 여느 IT 기술과 달리 '세력'을 논하기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라클의 주된 비즈니스 아이템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제 미들웨어도 기업의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된 것이다. 이처럼 시장 전반

에서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 미들웨어를 위해 열린 세미나가 바로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포럼 2009'이었다. 오라클이 제시하는 혁신사례와 전망 등이 폭넓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 IT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없을까?', '늘어나는 신규 애플리케이션과 ERP가 잘 연동되게 할 수 없을까?', 'SOA, Portal, BPM, ECM 국내 성공 사례를 직접 볼 수 없을까?' 등이 주된 화두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오라클 본사 CIO인 Mark Sunday가 방한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 IT 인프라의 발전 = 미들웨어의 발전

세미나는 한국오라클에서 퓨전미들웨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형래 부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라클 퓨전미들웨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오라클이 겪었던 IT 버블의 극복사례, 각종 비즈니스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임을 밝히고, 한국 시장에서 오라클의 퓨전미들웨어 제품군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주로 소개했다. 또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던 한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오라클은 전 세계적으로 8만 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00여 곳 이상의 퓨전미들웨어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 31% 가량이다가 2008년에 33%로 성장했다. 성장을 자체는 29%를 달성해 미들웨어 분야에서 5개 대형 벤더 중에 가장 높은 성



장을 달성했다. 한국에서도 2007년과 2008년 두 해 사이에 21%에서 24%로 성장했다.

특히 한국은 전체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 성장을 달성한 곳이다. 시장 평균의 2.3배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통신 산업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각 영역으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 주요했다. 이런 성장세는 각 분야에서 주요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포럼 2009' 연단에 오른 고객사들의 발표는 바로 이 부분을 과시한 것이기도 했다.

김형래 부사장이 개괄적으로 소개한 고객 사례는 동종업계는 물론, 미들웨어를 쓰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사람들이라면 흘러 넘쳐 버릴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라클 임직원들이 진행한 세션 외에 S사, L사, K사, H사 등 이니셜로 표현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내부 혁신 사례가 자세하게 공개되었는데, 그 영역은 제조에서 유통, 서비스까지 다방면을 관통하고 있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곧 '미들웨어'를 의미하다시피 했다.

'오라클 퓨전미들웨어 포럼 2009'는 오전과 오후로 주요 세션이 나뉘어져 있었다. 오전에는 오라클 CIO인 Mark Sunday와 경희대학교 박주석 교수, Mike Lehmann 시니어 디렉터 등의 세션이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비용절감을 넘어 비즈니스 효율성 실현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 A와 '불황기에도 멈출 수 없는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 B가 분리, 진행되었다.

오전 세션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점검해보는 것 외에 오라클을 스스로 하나의 사례로 다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색깔이 강했다. 중간의 배치된 박주석 교수의 프레젠테이션은 숨을 고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 뒤로 배치된 순서에서 오라클이 2000년 당시 IT 버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고해성사'가 이어졌다. 오라클이 '혁신'을 논할 자격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는 듯 느껴졌다.

점심 식사 이후에 이어진 오후 세션은 '비용절감'이라는 수세적인 관점에 무게를 둔 세션 A와 공격적인 전개를 상정한 세션 B가 각각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기업 마다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이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라는 상반된 입장을

감안해 세션이 기획되었다. 때문에 행사를 마무리한 가장 마지막 세션은 이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H자동차의 혁신 사례가 장식하였다.

### Strategies for Thriving in a Dynamic Environment

포럼의 키노트 연설을 위해 방한한 오라클 본사의 CIO 겸 수석부사장인 Mark Sunday는 오라클 글로벌 IT 인프라의 기획,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급 인사다. 현재 오라클은 온 디맨드 제품 오픈링의 운영 인프라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오라클에 합류하기 전에는 시벨 시스템즈(Siebel Systems)의 수석부사장 및 CIO를 역임하기도 했다.

'Strategies for Thriving in a Dynamic Environment'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의 세션에서는 오라클 솔루션의 지향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오라클의 제품군은 총체적이면서도 공개적인 오픈형태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 오라클의 제품을 모두 쓰지 않는 고객들의 환경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업체이지만, 2000년 당시의 IT 버블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실험과 시도를 끊임없이 하며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라선 입지전적인 기업이다. 진출한 각 국가별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던 오라클은 모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면서 요즘 기업들이 요구하는 '효율화'를 스스로 깨우친 기업이다. 세미나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Mark Sunday는 "총체적이면서도 공개적인 오픈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오라클의 입장"이라고 정의했다. "애당초 모두가 오라클 제품을 쓸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되면서도 통합이 가능한 제품이 기업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레벨이 통합된 형태로 잘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IT 인프라의 이기종이 당연한 것 같은 상황에서는 '오픈 된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트렌드에 대응하는데 있어, 오라클은 유리한 입장이다. 본래 전통적인 IT 영역에 근간을 둔 각종 혁신 활동을 직접 수행한 전례가 있으며 지금 당장 IT 비즈니스와 협업하고 있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을 관제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 Oracle Fusion Middleware Forum 2009

85,000여 명의 직원 지원과 80여 개에 이르는 고객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이다. 여기에 20,000명이 넘는 개발자와 매일 R&D 활동을 전개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큰 IT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라클은 매우 큰 규모의 IT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비즈니스 아이템인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매일 매일 DB 빌드를 구축하는 활동 외에도 일 52,000시간에 해당 되는 빌드 테스트를 몇 천 개의 서버를 동원해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을 위한 '오라클 유니버시티' 운영과 시벨, 피플소프트 등 인수 기업의 기술을 '온 디멘드'로 호스팅 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다.

광범위한 비즈니스를 IT 기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게도 오라클은 IT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데이터베이스-미들웨어-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를 이뤘음에도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Gartner가 글로벌 CIO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 결과는 오라클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기대치, 전략적인 대응, 사용하는 기술 등을 체크할 때 주로 참고되고 있다.

Gartner의 2008년도 설문조사와 2009년 설문조사 결과는 상이하다. 여기에 올 해는 비즈니스 유지와 비용절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편. 이는 아시아도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은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라클의 IT 조직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분산된 체제였다. 지사별로 알아서 사업하는 형태였던 탓에 70개가 넘는 ERP 시스템과 90개가 넘는 E-mail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고객이 보기에도 단일 기업이 아니라 분산된 조직의 연합으로 보이던 시절에는 고객이 직원 수를 물어도 모를 정도였다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중앙 집중된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작업이 진행되었다. 40개의 데이터센터를 3개로 줄이고, 단일 네트워크로 글로벌하게 모든 직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 솔루션과 이메일 솔루션도 재구축되었다.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무지원이 이루어졌고, ERP 솔루션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통합의 외중에 '셀프 서비스'의 비중을 키운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일

관성 있는 프로세스를 채택해 회계/인사/조달 등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부분을 비용효과적인 '워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탠스를 조정했다. 이런 웨어드 서비스의 정착은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순발력을 배양해 현재의 오라클 비즈니스 역량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오라클 비즈니스 편제가 구축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00년에 있었던 IT 버블이다.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기업이 되는 자질이 준비된 것이다. IT 업계에 불황이 찾아오자, 오라클은 IT 분야에서의 개선을 통해 오퍼레이팅 마진에서 10억 포인트나 늘려냈다. 매출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수익을 내는데 IT 분야의 혁신이 제 역할을 해냈다.

## 오라클의 '혁신'과 그 이후

IT 조직은 신제품 출시에 있어 'Key Enabl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Mark Sunday의 지론이다. '온 디멘드' 기반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그래야 혁신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 2008년 Gartner의 CIO 설문조사에 밑바닥을 전전하던 '비용절감'이 올해에는 2위로 성큼 올라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IT가 그 해답이다. 이는 오라클이 펼친 혁신 활동을 통해 잘 알아볼 수 있다.

오라클은 2006년 이래로 IT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현재 1.5%까지 비용 비중을 줄였다. 산업 평균치가 4% 정도니까, 평균치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비결은 IT가 결국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라는 점이었다.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늘어나는 폭이 적도록 유지하는 것이 오라클의 비결이다.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인재를 확보해 개발 및 유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사실 설문조사 리스트 위로 올라가는 있는 목표를 무엇이든 해내려고 하는 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가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는 IT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의 연합 등 주요 체계를 구축하는데 관련이 된다. 글로벌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관계 없이 마찬가지다. 그래야



IT 서비스와 자산을 융합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29개 프로세스를 IT 부서에서 진행한다. 고객 접대부터 문제파악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다. 서비스 카탈로그에서는 70개의 분리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프로세스 체인지에 대한 관리 정책도 정리해 투입한다고 한다. 무조건 리퀘스트가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해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수립, 적용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다.

Mark Sunday는 “비용절감에 포커스를 두는 건 좋으나, IT를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3년 후에는 IT가 엔터프라이즈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IT야말로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BI와 차세대 서비스 등의 프로젝트가 모두 이 같은 Mark Sunday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라클 유니버시티’에서는 주단위로 700개의 과정을 100개의 시설에서 제공하면서 자사는 물론 고객들의 역량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라클이 지닌 IT 혁신 역량이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 단위로 같은 교육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보니 자동화가 적용되는데, 이 때 가상화된 그리드 컴퓨팅과 300개 이하의 서버가 동원되는 소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쓰인다. 리소스 투입도 줄이고, 노동효율성도 높이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셈이다.

오라클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유니파이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한다.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더 필요하거나, 관계자들에게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때에는 ‘오라클 유니버시티’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체 자원으로도 관련 활동이 진행된다. 오라클의 교육활동이지만, 꼭 오라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자원으로도 진행된다. 비즈니스에서의 ‘유연성’을 꼭 내부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라클 스스로가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라클은 내부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사적인 Collaboration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기술을 역지를 묶었던 툴을

썼으나, 몇 년 전부터는 웹 2.0 기반 프로젝트를 만들자고 제안해 여러 피어처를 통합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단, 유저가 원하는 걸 골라 쓰게 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확보해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오라클의 업무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보이스 메일, 이메일 등으로 통합되는 것이 추세다. 이제는 ‘콜센터 애니웨어’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컴퓨터 텔레포니 통합이나 콜 분산 등을 진행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몰입형 비디오’를 통해 비디오 텔레포니 환경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 안에서 회의하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새삼 짚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오라클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 이 때 적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안’이다. 때문에 오라클은 모든 일의 흐름을 암호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자사와 자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모든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내외부를 통합하는 시장 추세 보다 앞서서 관련된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다. 특히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생기는 시장 환경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모든 컨트롤을 ‘안전’하게 관제하자면, 보안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보안이 다 갖춰진 다음에야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중요성이 더욱 빛나는 법. 업무를 서비스로, 서비스를 모듈로 간주하는 SOA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표준화 등의 활동이 접목되면서 결과적으로 총 소유비용(TCO)을 낮추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에 조직 전체를 뜯어 고치는 큰 공사가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해 오라클은 이미 14개월 전부터 조직 전체를 재편하고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고 있다.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혁신 사례는 고객들에게 제공되어 오라클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

